

# 說話文學의 意義와 方法

張 德 順\*

## 1. 說話文學의 意義

說話는 民謠, 俗談, 수수꺼끼(謎)들과 함께 口碑文學 分野에 屬한다. 口碑文學 혹은 口承文藝란 用語는 일찌기 佛蘭西의 民俗學者 P. Sébillot<sup>(1)</sup>의 <Littérature Orale>이란 데서 유래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美國같은 데서는 <Oral literature>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獨逸의 로망派 民俗學은 民謠연구에서부터 始作되었던 것이다. 歷史哲學者요 詩人인 J.G. Herder는 英國의 Thomas Percy의 <英國古代民謠拾遺><sup>(2)</sup>에 자극되어 민요를 수집하고 이 속에서 민족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獨逸의 民族精神을 찾아 보려고 했다. 이 Herder의 영향을 받은 로망派 詩人 Clemens Brentano<sup>(3)</sup>와 Achim von Arnim<sup>(4)</sup>등도 민요연구의 길을 개척했던 것이다.<sup>(5)</sup>

---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國文學)

(1) Paul Sébillot "Folklore de France" 1904—7.

(2) Thomas Percy (1729—1811): "Reliques of ancient English Poetry" 1765

(3) Clemens Brentano (1778—1842) 獨逸後期로만派 詩人

(4) Achim Von Arnim (1781—1831)

(5) Brentano와 Arnim은 <少年의 魔法의 뿔피리>(Des Knaben Wunderhorn) 1856~8 라는 民謠集을 刊行했다.

그러나 이렇게 민요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때, 그들의 친구인 Grimm 兄弟<sup>(6)</sup>는 민요보다 民譚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로 民譚 수집과 그 연구에 全力을 기울여서 獨逸民俗學의 口碑文學的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선구자가 되었다. 이들 민요연구나 民譚연구가 곧 當時의 獨逸民俗學의 全部인 것 처럼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英國의 William John Thomas<sup>(7)</sup>도 Grimm 兄弟의 영향으로 <Folklore><sup>(7)</sup>라는 論文을 發表하여 英國民俗學研究의 端緒를 잡았다. 이 論文 역시 口碑文學的인 경향이 짙어서 Folklore 라는 用語가 傳說, 民譚 등의 別名처럼 使用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었다. 오컨대 民俗學의 研究는 민요, 민담에 限하는 것 처럼 인식되는 이유도 위에서 말한 歷史的인 사정에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소위 口碑文學에서도 그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說話와 民謠인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民俗學者들은 民俗學이 墮레탄티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여 民俗學의 文藝的 趣味를 경계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民俗學에서 優위를 차지하고 있던 說話는 오늘 文學分野에서 또 脚光을 받게 되어 이른바 說話文學이 云謂되게 된 것은 결코 歷史的으로도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說話를 文學的인 基本樣式에서 考察하면 叙事文學系列에 屬함은 말할 것도 없다. 叙事文學의 鼻祖는 叙事詩고, 이 叙事詩는 그 源流를 神話, 傳說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個人에 依하여 藝術的으로 定着된 叙事詩(Epic)는 後代의 傳奇小說(Romance)과 近代小說(Novel)을 嫡子的系列에 두고 있다. 이 叙事詩는 神話, 傳說 등의 說話를 母胎로 하였던 것이다.

說話란 것은 集團的 共同作品이기 때문에 類型性이 많고 口口傳承하

(6) 兄 Jakob(1785~1863)

弟 Wilhelm(1786~1859)

(7) William John Thomas: "Folklore" 1846

는 不定型의 作品이기 때문에 原始宗教的인 信仰, 民族的, 政治的 秩序의 表現이 많다. 따라서 이것은 순수한 藝術的 意圖에서 제작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說話 속에는 文學的 要素를 추출해 보면 그것은 叙事詩의 原形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核心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神話 속의 世界觀的 要素나 世界의 成立과 發展을 설명하여 그 事實을 傳하려는 意圖, 그 自體는 藝術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이 要素(世界觀的 神格中心의)는 神話에서 派生한 傳說, 民譚 속에도 傳하여지고 또 叙事詩 속에도 流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叙事性은 近代小說에 까지 하나의 文學的 傳統으로써 뿌리 박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神話의 世界觀은 오늘날의 眼目으로 볼 때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自然物까지도 人格化하고 있지만 이것은 점차 時代에 알맞는 合理的인 世界觀으로 되면서 人間을 自然으로부터 區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神話, 傳說, 民譚 등 說話는 충분한 體系를 갖고 있지 않고 또 藝術作品으로서의 統一은 없으나 所謂 叙事文學의 發生狀態라는 面을 考慮할 때에는 <亞藝術>, <準藝術>의 性格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8) 다시 말하면 文學의 範圍를 넓게 設定할 때에 說話도 文學的 考察의 對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는 說話의 叙事性과 그 系譜로 보아서 說話文學이란 概念이 부여될 수 있는 可能性을 考察해 본 것이다. 다음으로는 說話自體가 拘有하고 있는 文學性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言及해 보겠다.

慶州의 釋迦塔傳說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阿斯達과 阿斯女, 그리고 無影塔과 影池에 얽힌 이 傳說은 아주 세련되고, 또 彫琢된 藝術性을 內包하고 있고 阿斯達과 阿斯女의 逸話는 훌륭히 文學으로 昇華되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分布된 소돔·고모라型의

(8) 岡崎義惠著「文藝學概論」參照.

傳說是 우리나라에도 全國的으로 分布되어 있다. 이른바 <장자못 傳說>이 그것이다. 이것도 宗教性和 道德性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構造나 人物의 性格등은 倫理性을 背景으로 하면서도 多分히 文學的으로 載어져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說話 中에서 神話나 民譚보다도 傳說이 훨씬 非文學的이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例證하기 爲해서 여기 잠깐 傳說의 例를 들어 둔 것이다. 神話나 民譚의 文學性은 이미 斷片的이나마 言及한 바도 있고 앞으로 本論에서도 누누히 叙述되겠기에 여기서는 略하기로 하고 아래에 陶南趙漢濟博士의 <說話文學考>를 引用하여 이 方面의 理解에 參考코저 한다. 寡聞한 나로서는 說話文學을 처음으로 우리 學界에 提示한 분이 라르 趙博士가 아닌가 생각한다.

「說話는 그 自體內에 文學性을 包有하고 있다 하겠거니와 說話文學은 그러한 說話를 母胎로 한 것이며, 또 그것을 文學에 再現시킨 것이다. 그러나 說話는 後世의 藝術家의 손을 기다려서 비로서 文學化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벌써 그 說話에 있던 文學性이 筆記者를 媒介로 하여 次第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sup>(9)</sup>

라고 하여 說話 自體의 文學性을 강조하였고 說話文學은 그런 說話를 筆記者가 文字化했을 때 이미 成立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리고 具體的인 例證으로 <旁龜>說話<sup>(10)</sup>와 홍부전, <龜兔之說><sup>(11)</sup>과 토끼전, <居陘知>說話<sup>(12)</sup>와 沈淸傳등을 들었고 三國史記, 三國遺事, 殊異傳에 採錄되어 있는 說話를 많이 例擧하여 이 方面 研究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說話文學이 단순히 文學性을 內包하고 있는 說話를 筆記者의

(9) 1941年 3月號 <文章>誌 發表.

(10) 酉陽雜俎 續集 卷一.

(11)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條.

(12) 三國遺事 卷二 居陘知條.

媒介로 定着된 것에 限한다는 說은 거의 日人學者들이 主張한 바로서 이것은 說話文學의 範圍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킨데 불과하다. 說話文學은 小說文學과 緊密한 聯關性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說話의 小說化 과정과 그 說話를 素材로 한 小說의 分析 研究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이다. 과연 陶南先生은 위와 같이 說話文學의 概念을 規定하고도 끝에 가서는 「小說文學의 研究는 今後 說話文學에서 얻은 바가 더욱 클 것이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說話文學을 큰 小說文學의 一部에 넣어서 研究하는 것이 도리어 當然하다.」<sup>(13)</sup>고 하였다.

그런데 說話가 文學樣式에 있어서나 系統論的인 體系에서 볼 때에는 敘事文學이요, 또 小說文學과도 깊은 聯關性이 있지만, 이 說話가 詩歌文學과는 전혀 無關한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古代歌謠(黃鳥歌, 箜篌引, 迎神君歌 등)나 鄭石歌, 또는 高麗歌謠는 거의 說話를 同伴하고 있고, 오히려 說話없이는 完全한 解釋이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이다. 古代歌謠뿐만 아니라 現代의 詩人들도 古典說話를 그 素材로 많이 援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說話文學의 研究는 자연 詩歌文學에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要컨대 說話의 文學的 考察은 결국 文學의 源泉, 文學史의 源流를 探究하는 目的이 된다는 것이다. 說話文學의 使命과 그 意義는 과연 여기에 있는 것이다.

## 2. 說話文學의 方法

첫째 說話自體의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 이 연구는 說話의 蒐集, 整理가 先行해야 하는데 우리 學界의 경우 아직도 이 方面의 事業이 거

(13) 上掲 <文章>

의 未開拓境地에 놓여 있다. 특히 口傳文學의 蒐集, 整理가 그렇다. 나는 이 연구를 爲해서 우선 文獻所載의 說話를 分類, 整理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 이 課業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겠고, 口傳說話의 集大成이 무엇보다도 緊要함을 여기에서 강조해 둔다. 如何間에 當面한 문제로서는 說話自體의 研究에도 우리의 손을 미쳐야 겠다. 說話文學이란 前提를 두고 볼 때에 이 研究는 民俗學的인 연구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民俗學的 方法을 전혀 度外視해서는 불가능하다. 說話研究의 先驅者인 孫晉泰教授의 「韓國民族說話의 研究」<sup>(14)</sup>는 文學을 外面한 民俗學的인 考察이지만 이 연구는 說話의 文學的 考究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說話自體의 연구에서 우리는 文學性 내지는 藝術性을 抽出해내야 하는 것이 中心課題이지만 이보다 앞서 그 說話가 우리의 固有한 것인지? 아니면 世界性을 띤 것인지? 그리고 그 說話의 影響 授受 관계는 어떠한가 하며 그 說話의 時代的 社會的 背景은 어떠한가를 考察해야 하겠다. 一例를 들면 <龜兔之說>은 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것이 時代的으로는 가장 오래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固有의 것이라고 단정했다가는 妄發이다. 日本, 中國 등에도 이런 說話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說話의 發祥地는 어디며 그것이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에 流入하였는가 하는 점은 응당 考察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爲해서는 모름지기 民俗學的 方法을 援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說話가 三國史記에서는 金春秋의 高句麗 脫出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點, 또 이것이 뒤에는 토끼傳이라는 小說로 發展했다는 點을 고려하여 그 說話 속의 어떤 要素가 이런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가를 考察해야 할 것이다.

說話自體의 연구에서 根本的으로 必要한 것은 그 構造의 分析이다.

(14) 乙酉文化社刊. 民族文化叢書.

日本の 說話學者 關敬吾는 說話 構造에 대해서 內部的 構造로 基本的 要素(motif)→要素群(挿話)→挿話群(說話型)의 三段構造로, 進行構造는 發端→經過→結末의 三段階 過程임을 제시했다.<sup>(15)</sup> 그러면 基本的 要素란 무엇인가? 톰슨의 見解를 들어 보기로 하자.

「說話에서의 모티브는 傳承시키는 힘을 가진 最小要素이다. 이 傳承力을 갖기 爲해 非常하고도 注目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티브는 셋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話中の 行爲者(神, 怪動物, 魔術師, 鬮人鬼, 仙女같은 異常한 存在, 심지어는 귀여운 아이나 심술궂은 繼母와 같은 典型的 人物) 둘째는, 行爲의 背景이 되는 어떤 事項(魔術, 怪風俗, 怪信仰 등등), 셋째는 單一한 事件, 이것들이 모티브를 이룬다. 이 중에서 마지막의 事件은 獨立의 存在며, 따라서 진정한 說話型으로서의 구실을 다한다.<sup>(16)</sup>

이와같이 모티브는 說話構成에 있어서 가장 짧은 內容이면서 또 중요한 알맹이가 되는 것이다. 이 모티브를 이해하기 爲해서 아래에 소듬·코모라型인 <장자못 傳說>의 構造를 分析해 보겠다.(이 장자못 傳說은 우리나라 全國에 퍼져 있는 代表的 傳說이기 때문이다.

1. 부자가 중에게 똥(쇠똥)을 주었다.
2. 중이 며느리에게 “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말했다.
3. 장자집은 벌을 받아 뇌성벽력과 소나기로 함몰해서 연못이 되었다.
4. 며느리는 돌이 되었다.»

이것은 <僧>, <보지말라>, <陷沒>, <化石>의 네개의 모티브가 연결되어서 두개의 挿話(① 僧과 陷沒…장자못 삽화. ② 타부와 化石…돌삽화)를 이루고 이 삽화가 하나의 說話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說話自體의 研究에서 이 分析的 方法이 先行되어야 장차 이것의 文學

(15) 關敬吾著 “民話” p125. 1955

(16) Stith Thompson: “The Folktale” p415—416. 1946.

(17) 崔來沃 碩士論文「說話와 그 小說化 過程에 對한 構造的 分析」

化過程을 또 分析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하기에 여기 分析方法의 一例를 들어 본 것이다.

둘째는 口傳說話와 文學化된 說話의 비교 연구이다. 口傳된 說話는 오래동안 民衆들 사이에서 流傳하면서 忘却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改作되면서 내려오는 共同作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文字로 定着되면 固定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비슷한 類型의 이야기들은 文字化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한편에서는 여전히 口로 流轉하는 특징이 있다. 이미 例로 든 <龜兔說話> 같은 것은 오랜 옛날에 文字化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變貌할 가능성이 없지만 앞에서 言及한 <장자못傳說>은 여러 文獻에 散在해서 文字化된 것이 많지만 그것이 모두 꼭 같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口傳하는 것은 多樣 多色하다. 중이 道師도 되고 더느리가 달도 되고 쇠뿔이 人糞도 되는 것 같은 것은 달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化石陷沒 같은 要素가 빠지기도 하여 거의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添削이 많다. 이와 같은 說話의 原形 또는 典型을 究明하는 것은 說話 연구에서 중요한 作業 가운데 하나이다.

口承說화가 文字로 定着되고 이것이 다시 文學化되는 과정이 결국은 說話文學 研究의 대상이 되는 만큼 口傳의 說話와 文字化된 說話의 比較考察이 必要한 基礎作業이라는 것이다.

셋째, 口承의 說話가 筆記者에 依해 文字化된 것은 이미 說話文學이라고 한 이왕의 說<sup>(18)</sup>은 說話自體가 文學性을 인정한 것으로 넓은 意味에서의 說話文學이 될수도 있다. 이것은 說話가 이미 藝術이라는 말과 같다. 과연 톰슨은 民譚을 가르켜 <民間藝術(folk art)>, 혹은 <口承說話藝術(Oral narrative art)<sup>(19)</sup>이라고 하여 說話 中에서도 民譚의 藝術性(주로 興味 中心의)을 強調하였고 神話學者 Thomas Bulfinch 는 「올

(18) 前掲 趙潤濟博士의 說.

(19) Stith Thompson; "Folktale"의 "The Folktale as living art"條



日本의 說話學者 關敬吾는 說話 構造에 대해서 內部的 構造로 基本的 要素(motif)→要素群(挿話)→挿話群(說話型)의 三段構造로, 進行構造는 發端→經過→結末의 三段階 過程임을 제시했다.<sup>(15)</sup> 그러면 基本的 要素란 무엇인가? 틈손의 見解를 들어 보기로 하자.

「說話에서의 모티브는 傳承시키는 힘을 가진 最小要素이다. 이 傳承力을 갖기 爲해 非常하고도 注目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티브는 셋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話中の 行爲者(神, 怪動物, 魔術師, 醜人鬼, 仙女같은 異常한 存在, 심지어는 귀여운 아이나 심술궂은 繼母와 같은 典型의 人物) 둘째는, 行爲의 배경이 되는 어떤 事項(魔術, 怪風俗, 怪信仰 등등), 셋째는 單一한 事件, 이것들이 모티브를 이룬다. 이 중에서 마지막의 事件은 獨立의 存在며, 따라서 진정한 說話型으로서의 구실을 다한다.<sup>(16)</sup>

이와같이 모티브는 說話構成에 있어서 가장 짧은 內容이면서 또 중요한 알맹이가 되는 것이다. 이 모티브를 이해하기 爲해서 아래에 소동·고모라型인 <장자못 傳說>의 構造를 分析해 보겠다.(이 장자못 傳說은 우리나라 全國에 퍼져 있는 代表的 傳說이기 때문이다.

1. 부자가 중에게 똥(쇠똥)을 주었다.
2. 중이 더느리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말했다.
3. 장자집은 벌을 받아 뇌성벽력과 소나기로 함몰해서 연못이 되었다.
4. 며느리는 들이 되었다.»

이것은 <僧>, <보지말라>, <陷沒>, <化石>의 네개의 모티브가 연결되어서 두개의 挿話(① 僧과 陷沒...장자못 삽화. ② 타부와 化石...돌삽화)를 이루고 이 삽화가 하나의 說話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說話自體의 研究에서 이 分析的 方法이 先行되어야 장차 이것의 文學

(15) 關敬吾著 “民話” p125. 1955

(16) Stith Thompson: “The Folktale” p415—416. 1946.

(17) 崔來沃 碩士論文「說話와 그 小說化 過程에 對한 構造的 分析」

化過程을 또 分析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에 여기 分析方法의 一例를 들어 본 것이다.

둘째는 口傳說話와 文學化된 說話의 비교 연구이다. 口傳된 說話는 오래동안 民衆들 사이에서 流傳하면서 忘却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改作되면서 내려오는 共同作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文字로 定着되면 固定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비슷한 類型의 이야기들은 文字化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한편에서는 여전히 口로 流轉하는 특징이 있다. 이미 例로 든 <龜兎說話> 같은 것은 오랜 옛날에 文字化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變貌할 가능성이 없지만 앞에서 言及한 <장자못傳說>은 여러 文獻에 散在해서 文字化된 것이 많지만 그것이 모두 꼭 같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口傳하는 것은 多樣 多色하다. 중이 道師도 되고 며느리가 딸도 되고 쇠똥이 人糞도 되는 것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化石陷沒 같은 要素가 빠지기도 하여 거의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添削이 많다. 이와 같은 說話의 原形 또는 典型을 究明하는 것은 說話 연구에서 중요한 作業 가운데 하나이다.

口承說화가 文字로 定着되고 이것이 다시 文學化되는 과정이 결국은 說話文學 研究의 대상이 되는 만큼 口傳의 說話와 文字化된 說話의 比較考察이 必要한 基礎作業이라는 것이다.

셋째, 口承의 說話가 筆記者에 의해 文字化된 것은 이미 說話文學이라고 한 이왕의 說<sup>(18)</sup>은 說話自體가 文學性을 인정한 것으로 넓은 意味에서의 說話文學이 될수도 있다. 이것은 說話가 이미 藝術이라는 말과 같다. 과연 톰슨은 民譚을 가르켜 <民間藝術(folk art)>, 혹은 <口承說話藝術(Oral narrative art)<sup>(19)</sup>이라고 하여 說話 中에서도 民譚의 藝術性(주로 興味 中心의)을 強調하였고 神話學者 Thomas Bulfinch 는 「울

(18) 前掲 趙潤濟博士의 說.

(19) Stith Thompson; "Folktale"의 "The Folktale as living art"條

립포스의 諸神은 이제 神學의 一分野가 아니라 文學과 嗜好(taste)의 分野에 속한다.<sup>(20)</sup> 고 하여 神話의 文學性을 지적했고 Grimm 兄弟도 「民譚은 詩的」<sup>(21)</sup>이라 했고, Bulfinch 는 「로망쓰(傳說)의 文學은 詩的資料의 寶庫」<sup>(22)</sup>라고 하여 神話, 傳說, 民譚의 (說話등이) 모두 文學 내지는 藝術의 源泉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說話文學의 使命은 이런 說話에서 그 藝術性이나 文學性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막연히 「文學性을 包有하고 있는 說話」라고 하여 說話文學云云하는 것은 學의 方法이 아니다. 說話 속에 응장되어 있는 世界觀, 人生觀을 파악하고 그 속에 스며있는 공포, 불안, 憐憫, 同情의 心理狀態등 文學과 共同 領域에 있는 興味(Interesting)와 재미(Amusement), 그리고 道德性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文學의 抽出, 分析이야말로 說話文學의 가장 基本的이요, 또 根幹的인 作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모든 說話에는 한결같이 文學이 內在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어떤 說話는 民俗學的인 面에서는 關心의 對象이 되지만 文學的인 面에서는 一考의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또 現代의 好事家가 제멋대로 脚色해 낸 이야기도 있어서 說話選擇의 必要性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選擇의 基準은 말할 것도 없이 文學研究의 方法을 仍用하는 것이다. 오직 狹意의 文學은 文字化된 作品이요, 이 說話文學은 作品化 以前의 것이 다를 뿐 文學世界의 共通領域이라는데 있어서는 다찬가지다. 오히려 說話의 文學的 考究는 文學의 母胎, 文學의 原初的 모습을 캐어 낸다는 面에서 그 意意는 더 크다고 말할수 있다.

要컨대 說話에서 文學을 分析해 낸다는 것은 古典世界를 現代에로 導

(20) Thomas Bulfinch: "Mythology" A Modern Abridgement by Edmund Fuller. The Age of Fable or Stories of Gods and Heroes.

(21) Grimm, W.: "Deutsche Sagen" 1816

(22) 前揭書

入시킨다는 結果가 되는 동시에 古典이 現代文學 속에 自然스럽게 棲息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넷째는 本格的 文學作品에 나타난 說話의 考察이다. 이것은 그대로 文學作品의 연구이기도 하다. (오직 說話를 素材로 한 作品에 限하지만) 說話가 叙事文學의 根源이기 때문에 옛날 小說이나 現代小說에 說話를 素材로 혹은 그것을 根幹으로 하는 作品이 많다. 小說 속에 介入되어 있는, 또는 융합되어 있는 說話의 發掘과 그 分析은 說話文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파우스트나 失樂園, 神曲은 물론 셰익스피어의 많은 作品들이 古代說話에 依存해서 作品化되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른바 우리의 古代小說은 거의가 이 說話에 뿌리박고 創造되었다. 그리고 現代의 作家들도 점차 古典說話를 素材로 作品化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한 作品에 하나만의 說話가 깃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옛이야기가 混合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作品의 연구는 이 모든 說話의 갈피를 잡고 그 構成의 要因, 相互關係 또 小說化 過程에서 중요한 계기를 맺고 있는 모티브의 摘出, 分析이 필요하다. 例컨대 沈淸傳의 경우, 孝를 主題로하는 이 小說에는 父親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人身供犧의 說話 (英雄說話)가 主軸을 이루면서 展開해 나아가지만 여기에는 得明說話, 龍宮說話 등이 插話처럼 介入되어 있는가 하면 三國遺事에 引用되어 있는 <居陋知> 說話가 거의 同軌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沈淸傳의 研究는 이 모든 說話의 分析比較가 先行되지 않으면 不可能하다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現代小說의 많은 短篇도 이 說話를 素材로 한 것이 많지만 長篇小說도 역시 많다. 玄鎮健의 無影塔은 慶州의 影池와 釋迦塔에 얽힌 說話가 그 中心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歷史小說에는 實은 說話의 要素가 縱橫으로 混入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現代小說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 있는 古典說話가 原形 그대로 引用되기도 하고 혹은 現代的으로 변모되어서 作品 속에 녹아 들어갈 경우도 있으나 이것의 根源的考察은 역시 說話文學의 과제인 것이다.

小説뿐만 아니라 詩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說話가 敘事文學의 系譜에 속한다고 해서 抒情文學과는 전혀 無關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敘事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이 說話는 抒情詩에도 많은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의 古代詩歌나 鄉歌 그리고 高麗歌謠는 한결같이 說話를 同伴하고 있다. 아니 說話에 依해서 살고 있는 作品이 많다는 것이다. 이 歷史性은 現代詩에도 無視할 수 없을 정도로 作用하고 있다. 詩 속에 스며 있는 說話가 어떻게 詩를 살찌게 했으며 또 그것의 根本精神(古代의 世界觀, 人生觀)이 現代詩에서 무엇을 志向하고 있는가? 이러한 問題의 追求는 결국 詩 研究의 本領이기도 하다.

끝으로 說話나 作品自體의 연구는 아니지만, 說話의 文學化가 지니고 있는 時代的 社會的 意義의 究明이 또 必要하다. 國文學史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說話의 文學化가 활발한 시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說話의 文學化가 활발한 時代는 우리의 固有文化가 중요시 되고 자체내의 文學적 能力을 발휘하는데 관심을 가진 계층이 文學을 담당했으며 반면에 활발하지 못한 때는 外來文化에 대한 依存性이 강하여 固有文化가 그 그늘 밑에 주집이 들 때라고 생각할 수 있다. 國文學史는 이 說話의 文學化를 계기로 하여 時代를 區分할 수도 있다. (23)

(23) 첫째시기. 古代에서 高麗初期 혹은 中期까지 아직 儒教 특히 朱子學이 貴族社會의 支配的인 理念으로 확립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두째시기. 高麗中期 혹은 末期에서 壬亂前까지 朱子學을 이념으로 하는 貴族이 文學창조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平民文學이 口碑的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時期.

그리고 作家들이 現實과 直面하는 것을 忌避하기 위해서 說話의 世界로 沒入하는 경향이 많다. 日帝時代에 金東仁 같은 作家가 野談, 野史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은 것은 좋은 例이다. 그러나 現實逃避의 方法으로서 만이 아니라 現實에서 幻滅을 느꼈을 때, 또는 古典에의 憧憬 神話에의 復歸라는 自然發生的인 心理에서 詩人, 作家가 古典說話에서 鄉愁를 느끼는 경우도 많다.

要컨대 이와 같은 時代性과 社會性을 究明하는 것은 說話文學의 한 方法이 된다는 것이다.

---

세째시기. 壬亂後에서 甲午更張까지의 시기. 귀족사회에서도 朱子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平民文學이 口碑的 영역을 벗어나 크게 발달한 時期  
네째시기. 甲午更張 이후에서 오늘까지. (趙東一, “우리나라의 說話와 國文學” 「成大文學」十三號)